

# 調節理論의 轉換: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貨幣의 暴力』과 欲望의 政治經濟學 批判

李 炳 天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르네 지라르의 模倣欲望論을 도입하여 조절이론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노동이 아니라 욕망, 상품이 아니라 화폐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화폐가 상품 경제의 토대라고 보았다. 그들은 화폐를 근대 사회에서 취득 욕망으로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방 욕망이 상호 폭력에 의한 共滅로 끝나지 않고, 욕망을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조절의 제도 형태라고 보았다. 이렇게 하여 노동 착취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도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근대 경제에 내장되어 있는 폭력의 정제,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물상화시키는 자본주의 폭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의 윤곽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에 의한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하이에크식의 자유주의적인 자생적 질서론과 대항할 뿐 아니라, 맑스-베버적 전통에 뿌리를 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구적 이성 비판 이상의 근대성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이 맑스가 가치형태론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화폐 발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은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개척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노동의 정치경제학 비판, 또는 착취 비판의 독자적 차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지도 않았다. 그들은 화폐 폭력의 새 차원을 드러내었지만, 화폐 주권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자본의 폭력론을 발전시키지는 않고 있다.

## 1. 머리말

조절이론은 1970년대 중엽 프랑스에서 전후 서구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과 위기를 통합적인 논리로 해명하고, 새로운 代案的 發展樣式을 모색하려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었다. 이 학파는 자유주의적 신고전파 일반균형이론과 구조주의적 맑스주의를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등장했다. 아글리에타의 『資本主義의 調節과 危機』(1976)의 출간 이후 1988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등, 조절학파의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확산되었다. 국제적인 비판적 수용과정에서 정치이론(특히 독일, 영국)과 ‘제3세계’ 발전론 등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으며, 다른 이론적 흐름과의 생산적인 교류와 상호침투도 일어났다.

그러나 조절이론에 대해 호의적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반대의 강한 거부 반응도 있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이런 저런 반응들 이상으로 정작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조절이론의 본산인 프랑스 내부의 동향이다. 조절이론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파리학파만 보아도, 처음부터 이론적 통일성을 갖지 못했고, '價格理論的分派'와 '價值理論的分派'의 분화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변모는 이러한 구분을 훨씬 넘는 분화 및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리학파의 현재의 이론적 양상은 대략 다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1) 균형이론과 가치실체론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추구함으로써 模倣欲望論 및 模倣期待論을 수용, 발전시키고, 조절이론을 구조주의와 결정적으로 단절한 새로운 批判的 社會化論 또는 민주적 自己組織化論으로 발전시킨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 2) 조절이론을 알튀세르 학파의 '反抗的 繼承者'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것을 '止揚'하는 도상에서 맑스주의로부터 政治生態學으로 나아간 리피에츠. 3) 조절이론을 批判的 制度經濟學의 프론티어로 이해하면서 제도 형태의 동학을 발전시킨 브와예를 중심으로 한 CEPREMAP의 주된 흐름.<sup>(1)</sup> 3)의 흐름은 탈중심화된 상품경제에서의 사회화 문제를 관심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 2)의 흐름과 구분된다(Cartelier and de Vroey(1989)).

학파의 이같은 분열상은 조절이론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조절이론을 비판하는 쪽만이 아니라, 리피에츠도 조절이론의 파열을 말하고 있을 정도다 [Lipietz(1994, pp. 84-85, 96)]. 조절이론을 보는 태도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보는 바와 같이 아글리에타의 초기 저작, 『資本主義의 調節과 危機』를 기준으로 하여 조절이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이미 적절하지 않다. 왜냐 하면 이 저작 자체가 여러 이론적 난점과 모순, 공백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조절이론을 모순적 운동과정에 있는 미완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후의 연구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한다. 이 글은 파리학파 조절이론의 세 흐름 가운데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연구, 그 중에서도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모방욕망론의 수용에 의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재구성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텍스트는 『貨幣의 暴力』(1982)<sup>(2)</sup>이다. 아글리에타의 초기 저작에

- 
- (1) Boyer and Saillard(1995)는 조절이론의 연구 성과와 전망을 이 분파의 주도하에 정리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제도학파의 흐름들 속에서 조절이론의 위상을 간결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같은 책에 수록된 Valleva(1995)을 참조하라. 일본의 山田銳夫도 조절이론을 브와예의 비판 거시 제도학파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있다.
- (2) 이하 본문의 문헌 인용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貨幣의 暴力』의 면수를 나타낸다. 모든 문헌 인용에서 국역 또는 일역이 있을 때는 번역본의 면수를 표시하였다.

비해 그와 오를레앙의 이후 연구들은 그만큼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연구의 실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sup>

제2절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먼저 이에 대한 리피에즈 및 카르틀리에의 비판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라르의 모방욕망론을 근대성의 비판이론으로 또 달리 발전시킨 듀피와 듀무셀의 연구를 『貨幣의暴力』과 비교해 볼 것이다.

## 2. 『貨幣의暴力』과 欲望의 政治經濟學 批判

### 2.1. 自己組織化, 近代性, 調節

조절이론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신고전파는 1) 호모 에코노미쿠스적인 合理的 主體 2) 均衡 3) 市場을 통한 조절의 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조절이론은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구성된 신고전파의 자동조절적 시장이론과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종식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을 비판할 뿐 아니라, 불변의 구조가 영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측면에만 주목한 構造主義의 맑스주의의 자본주의의 역사 파악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동시에 비판하였다. 신고전파와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에 대한 양면적 비판에서나, 조절이론의 自己正體性을 구성함에 있어서나 근본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절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의 개념이 그것에 합당한 의미내용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습은 파리학파를 포함하여 프랑스 조절이론가들이 조절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정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Jessop(1990, p. 304)). 보다 심각하게 카르틀리에와 드 브로이는 조절의 개념은 균형 개념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 그칠 뿐이며, 따라서 조절이론은 그 주관적 야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Cartelier and de Vroey(1989)). 그러나 조절이론이 신고전파적 균형이론과 구조주의적인 재생산론을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은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이 조절개념을 형태 발생론적 개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아글리에타는 조절이론에 대한 그의 처음 저작에서 주로 일반균형이론을 겨냥하여, 이 이론은 1) 경제과정의 歷史的 動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고, 2) 경제관계의 社會的

(3) 이에 대해서는, 필자와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Cartelier and de Vroey(1989, p. 82)도 지적한 바 있다.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며 그 때문에 경제과정의 세력과 갈등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Aglietta(1976, p. 29)). 그에 의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때문에 사회 시스템의 재생산방식과 함께 그것의 質的 變化, 즉 斷絶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사회시스템은 단순히 기능적 상호의존이 아니라 位階的 方式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조절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본주의적 조절의 연구는 ……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비경제적이기도 한 새로운 형태들, 즉 구조로 조직화되어 있으면서 그 자신 생산양식이라는 결정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창출하는 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유물론의 일반적 교훈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즉 계급투쟁의 영향 하에서의 생산력의 발전, 계급투쟁 조건의 변화, 그러한 발전의 영향속에서 투쟁이 구체화되는 형태들을 밝히는 것이다(Aglietta(1976, p.39): 인용자 정정).

『調節과 危機』에서 아글리에타는 자본간의 경쟁형태가 아니라 임노동관계의 전환을 자본주의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적 조절과 국가적 조절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제도속에 조직된 계급투쟁의 역사적 산물인 복잡한 사회적 관계’로 정의되는 ‘構造形態’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조절이론에 고유한 내용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의 개념은, 방법론적 구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재생산에 계급투쟁을 도입한 자기 비판 이후의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와 친화성을 갖고 있었다. 즉 『조절과 위기』에서의 문제 설정은 재생산의 구조주의적 문제설정을 歷史化하는 것이었다.<sup>(4)</sup>

조절이론이 신고전파의 균형이론 및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의 재생산론과 결정적으로 단절하게 되는 것은 자기조직화론을 수용함으로써다. 『調節과 危機』 이래 아글리에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균형이론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었다(Aglietta(1989)). 균형이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직화의 과정에 선행하여, 그것과 독립된 구조적 준거, 또는 중력중심을 상정한다는 데 있다. 반면에 자기조직화론은 주체의 間主觀的 상호작용을 통해 秩序의 發生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주체의 상호작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秩序의 作動方式을 설명한다. 나아가 그것은 우연을 의미로 변화시키는 주체의 자율적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결정론적, 목적론적 가정에도 의거함이 없이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을 불확정적인 열린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기조직화론은 경제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뉴턴, 데카르트적인 고전과학의 환원주의와 기계론적 결정론, 즉 물질과 정

(4) 이것은 아글리에타와 발리바르가 서로 상대방의 저서를 우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신, 사실과 가치, 필연과 우연, 구조와 주제, 원인과 결과, 인간과 자연 등의 분리/이원론을 극복하는 새로운 과학혁명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sup>(5)</sup>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정치경제학 비판에 이 새로운 사고를 수용하였다.

『貨幣의 暴力』에서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조절이론의 혁신을 위한 이론적 단절의 근본 쟁점이 ‘組織化’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프리고진의 混沌(chaos)을 통한 秩序形成理論을 수용하여 기계론적 접근 및 구조주의적 접근과 단절하는 形態發生論的 接近을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론, ‘模倣欲望의 自己組織化論’을 수용하여, 사회관계를 대립, 적대, 폭력을 근본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는 분리로 파악하였다 [Aglietta and Orlean(1982, p. 6)]. 그리하여 자기조직화라는 개념은, “제도가 한편으로는 갈등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본질적 폭력)의 산물인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미내용을 갖게 된다(Aglietta(1994, p. 56)).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아글리에타는 지라르적 문제설정을 넘어서 폭력적 적대성 속에서 어떻게 사회 질서가 통합성을 유지하고 발전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적 통합은 갈등들의 상극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조절의 개념이 떠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다. 조절개념은 맑스주의 통설과는 반대로 어떠한 목적론적 가정에도 의거하지 않고 그것을 해명한다. 자본주의 조절이론은 사회형태의 생성, 발전, 소멸의 이론이며, 요컨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제분리가 그 속에서 운동하는 전환의 이론이다(Aglietta(1976, 제2판 서문, p. 7)).

사회관계의 폭력적, 적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갈등을 조절하는 형태가 생겨남으로써다. 이 조절의 형태가 곧 사회제도다. 제도화는 사회의 혁신이며, 자유의 공간은 사회의 혁신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사회제도가 강제하는 규범과 관습은 사회집단을 갈등의 직접성이라는 가공스런 강제로부터 구제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개체, 새로운 시민적 공공성, 경제 민주주의는 바로 사회의 혁신, 즉 새로운 조절형태의 출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진보이다. 사회적 개체를 규정하는 질은 조절의 질서하에 의거한다(Aglietta(1976, 제2판 서문, p. 11)). 그러나 사회제도는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창출에 의해서 적대성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운동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 때문에 조절에는 결코 최종적인 해결 형태, 절대적 조절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통합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여, 기존의 사회제도의 조절틀을 넘어서게 된다. 이로부터 위기는 항상 조절속에 내재해 있다

(5) 자기조직화론의 동향에 대해서는 Dumouchel and Dupy(1983), Schmidt(1987)를 참조하라.

는 테제가 나온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에 있어서 조절이란 한편으로 갈등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면서, 과정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제도에 의한 사회의 조직화라는 의미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자유와 정의라는 근대성의 보편적 규범에 의한 갈등의 조절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 2.2. 勞動, 欲望, 政治經濟學 批判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조절의 문제설정을 葛藤的 自己組織化와 민주적 통합의 문제 설정으로, 조절양식을 탈중심화된 상품경제의 葛藤的 社會化樣式과 민주적 통합양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상품경제에서의 폭력의 성격과 형태들을 밝히고, 그 속에서 화폐가 수행하는 역할을 해명하는 작업으로 나아간다. 그들에 따르면 탈중심화된 개인주의적 상품경제가 사회적 분리의 구조 해체 작용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체의 사회화와 사회의 조직화를 달성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모든 경제이론이 직면하는 근본문제다. 이들에 의하면 효용 가치설이나 노동가치설에서처럼 교환과정에 선행하는 외재적인 어떤 초월적, 선험적 원리(전자는 가치 = 효용, 후자는 가치 = 노동)를 도입하여 상품경제의 사회형성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실체주의적, 환원주의적 접근은, 사회성을 사회화 과정의 도달점으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사회화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화폐가 불필요하게 된다. 출발점은 노동이 아니라 욕망이 되어야 하며, 화폐는 상품사회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연관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아마도 맑스주의 이론은 노동에 관한 한 가장 심원한 분석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분리된 모든 생산양식은 잉여노동의 착취양식이라는 생산양식의 문제 설정에 서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수 역사적인 착취방식을 해명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적인 노동과 소유 일치론, 즉 자기의 노동에 기초한 소유론을 비판하고, 타인노동의 착취에 기초한 소유라는 새로운 범주를 발굴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유, 평등, 배당의 원리가 구현되는 상품교환의 '表層' 과는 달리, '深層' 의 생산의 비밀 실험실에서 자본의 전제적 지배하에서 조직화되는 노동과정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와 잉여가치의 착취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한 자본의 모순에 찬 축적 동학을 탐구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에서 맑스는, 특히 『資本論』에서,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교환의 '外觀' 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深層' 의 착취관계를 드러낸다는 목적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등

(6) 이러한 견해와 조절이론을 효율성과 공정성의 결합을 추구하는 이론으로 보는 견해(Favereau (1994))를 비교해 보라.

가교환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실체론적 환원주의 가치론의 기원이 된다. 노동가치를 사회화 과정에 선행하여 전제하고 있는 이 실체론적 환원주의의 난점 때문에 맑스주의 이론은 개인주의적 효용-최소성이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신고전파 경제학, 나아가 자유주의에 의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인간관이 헤게모니적 인간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흥미로운 것은 '부르조아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이,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사회주의 사회가 기술진보의 해방력에 대한 신앙은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Aglietta and Orlean(1982, pp. 24-25)].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 이것은 구조주의적 맑스주의 전통에 기인한다 — 맑스 자신도 그의 '資本의 文明化 作用'論이 잘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같은 근대 생산지상주의를 자유주의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맑스에게는 정통 맑스주의에 기원을 제공하는 실체론적 환원주의 가치론이 지배적이긴 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사고가 존재한다. 맑스는 말하고 있다: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공동 노동으로서의 개인의 노동이 아니라, 역으로 사적 개인의 특수한 노동, 교환과정에서 비로소 그것들의 본래의 성격을 지양함으로써 일반적 사회적 노동이라는 실질을 나타내는 노동이다. 따라서 일반적 사회적 노동은 주어진 전제가 아니라, 생성된 결과이다. 이리하여 또 새로운 곤란이 생긴다. 즉 한편에서는 상품은 대상화된 일반적 노동시간으로 교환과정에 들어가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들의 노동시간의 일반적 노동시간으로서의 대상화 그 자체가 바로 교환과정의 산물이라는 곤란이다.

일반적 사회적 노동이 교환과정의 결과라는 맑스의 지적은 그가 상품 세계를 교환과정으로서, 이 교환과정이 직조하는 질서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이론에는 착취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疎外論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맑스는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초래된 정치적 해방의 본질을, 정치국가로부터의 시민사회의 해방으로, 그리하여 자연적 욕망의 해방, 물질주의, 이기주의의 완성과 인간들간의 交通(Verkehr)의 소외 및 몰화에서 찾았다. 이 점에서는 시민사회를 '欲望의 體系'로 본 헤겔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소외론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맑스의 사상이 급진계몽주의와 더불어 이를 비판한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인데, 『政治經濟學批判要綱』의 교통형태의 역사적 3단계론과 『資本論』의 가치형태론의 의미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맑스는 고전파 경제학의 근본적인 결함의 하나를 가치형태론의 부재에 있다고 비판하였

다. 그리고 고전과가 가치형태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그들이 가치크기의 분석에만 몰두한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생산물의 가치형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것에 의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생산의 특수 역사적인 형태가 되는데, 이 생산양식을 영원한 자연적 형태로 간주하게 되면 가치형태의 독자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치형태론의 구체적 내용은 상품적 시민사회 관계속에서의 상품생산자 = 교환자들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화폐형태가 창출되는 논리적 과정에 대한 탐구다. 맑스는 단순한 가치형태로부터 시작하여 복수의 상품들이 등가형태를 차지하려고 하는 쟁탈전 속에서 최종적으로 금이 등가형태의 위치를 독점함으로써 일반적 가치형태가 화폐형태로 전화되는 과정까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주체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주체이며, 사회화는 주체들의 사적 노동의 사회적 승인욕망과 승인투쟁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 서구의 일부 정치경제학 비판이(7) 발전시킨 이 접근에서 맑스는 정당하게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통일체로서의 상품을 자본주의 '生産樣式'의 세포형태로 보고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글리에타와 오를레망에 의하면 '인간 정신의 귀중한 逸品' [Aglietta and Orlean(1982, p. 35)]인 맑스의 가치형태론의 결정적인 공백과 난점은 사용가치가 前概念(pre-notion)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다. 욕구에 대한 그의 여러 철학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용가치는 사회관계로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Aglietta and Orlean(1982, p. 23)]. 그의 가치형태론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되는 것은 노동의 승인이며, 노동의 의미작용의 위상은 문제로서 제기되지 않고 전제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은 노동의 의미작용을 넘어선 광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욕망이 기본적인 인간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경제학 비판은 노동과 관련된 모순들보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모순에 대한 분석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Aglietta and Orlean(1982, p. 35)].

### 2.3. 模倣欲望과 貨幣

아글리에타와 오를레망에서 이제 출발점은 노동이 아니라 욕망이다. 그렇지만 이 욕망은 순수경제학, 주관가치론에서와 같이 로빈슨 크루소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효용, '物에 대한 순수한 욕망'은 아니다. 경제학의 아킬레스의 臆은 욕망을 주체 — 대상의 이항관계로 파악한 데 있다. 결정적인 것은 욕망을 주체 — 타자 — 대상의 3항 관계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지라르(René Girard)가 말하는 욕망은 인간들간의 사회적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욕망이고 적대적 갈등을 불러오는 욕망이며, 그러한 갈등속에서도 사회적 통합

(7) 아글리에타와 오를레망은 드 브뤼노프, 귀베르, 리피에츠, 네그리 등의 연구를 들고 있다.



이 이루어지는 욕망이다.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에 의하면 지라르의 모방욕망 가설은 인간 욕망을 특징짓는 기본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이 가설에 입각하여 사회적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사용가치의 일반 개념을 구성할 수 있고, 맑스의 가치형태론을 주관가치론의 비판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Aglietta and Orlean (1982, p. 26)). 더욱이 지라르의 가설에 의해 사회제도들의 발생과 개인들의 상호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제도의 작용논리를, 즉 제도의 자기조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제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면성이란 제도가 인간의 간주관적 상호작용, 즉 모방폭력에서 발생하면서, 동시에 욕망의 상호 충돌의 외부에서 이 욕망들을 규격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양면성은 제도의 논리를 순수한 간주관적 경쟁적 적대관계와 구분하게 하는 것, 즉 주권의 징표이며, 따라서 또한 화폐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Aglietta and Orlean(1982, p. 27)).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은 합리적 자율적 주체가 아니다. 인간존재는 불확실하다. 인간의 근원적 욕망은 존재의 욕망으로서 존재의 결여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렬하게 욕망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모방충동은 욕망의 불확실성의 각인이 찍혀 있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형성케 하는 근본적인 추동력이다.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존재의 준거점을 타자에서 찾는다. 존재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 타자라는 모델에 의거하는 욕망이다. 욕망 주체는 타자가 이 존재를 얻기 위해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알려 주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만약 자타가 동일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델은 추종자가 자신과 경쟁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추종자는 자신이 비난받고 모욕당했다고 믿는다. 추종자는 나를 모방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나를 모방하지 말라는 명령, 즉 모순적인 二重命命(double bind)에 직면하게 된다. 이리하여 타자는 주체의 모방 모델인 동시에 경쟁상대인 障礙物(modele/obstacle), 즉 짝패(double)가 된다. 이로부터 주체 — 대상 — 경쟁상대라는 모방 적대의 기본 구조가 나타난다. 짝패 갈등은 인간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本質的 暴力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본질적 폭력은 상대방의 보복을 수반하면서 끝없이 모방됨으로써 상호 폭력으로 전화된다. 이 인간간의 상호 폭력은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이리라고 한 흡스를 연상시키지만, 적대의 발생조건과 방식은 흡스와는 매우 다르다. 뿐만 아니라 지라르는 흡스의 '舍理的' 계약이론과는 전혀 다른 질서의 자기조직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모방 감염에 의해 폭력이 만연되는 상황에서 질서가 탄생되는 원리로서 지라르가 제시하는 것은 모방의 一點集中(polarization)에 의한 선출, 배제 = 희생자 살해다. 그렇지만 제

도의 창출에 의해 인간들간의 적대성은 소멸하지 않고 사회 내부에서 새로이 운동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욕망을 주체 — 대상의 이항 관계가 아니라, 주체 — 타자(경쟁상대) — 대상의 3항 관계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사회질서의 기원에 있는 것은 희소성이 아니라 모방의 적대관계이며, 經濟的 暴力이 희소성의 산물이 아니라 반대로 희소성이 경제적 폭력의 산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식이 나오게 된다[Aglietta and Orlean(1982, 제2판 서문, p. 16)].

지라르의 모방욕망론에 의거하여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화폐를 상품사회에서 주체의 모방폭력을 조절하는 제도적 제3항, ‘자기조직화의 형태하에서 경제적 주체가 사회화되는 양식’으로 파악한다. 이 모방의 적대관계의 논리에 의거하여 맑스의 가치형태론은 새롭게 해석되며, 맑스가 해결하지 못한 만장일치를 통한 화폐발생의 문제도 새로운 해법을 갖게 된다. 가치형태 발전의 추동력은 노동의 승인욕망이 아니라, 모방욕망이다. 맑스는 가치형태론에서 일반적 등가형태의 발생을 선출/배제의 논리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상품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을 상대적 가치형태에 놓으면 어떤 한 상품도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맑스의 설명은 논리적 난점을 가지고 있다.<sup>(8)</sup>

맑스 자신 또한 이 논리적 난점을 알고 있었다:

어떤 상품 소유자에게도 다른 모든 상품은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가치로서만 서로 상대하게 된다[Marx(1867, pp. 108-109)].

각자의 생산물에 대해서 모두가 즉자적 보편타당성 요구를 내세우는 데서 기인하는 이 전면적 상품교환의 불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맑스는 모두 한 마음이 되는 만장일치적 행동에서 찾고 있지만[Marx(1867, p. 109)], 일반적 등가물이 선출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화폐론은 결국 상품화폐론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네티와 까르틀리에에는 맑스가 ‘目錄의 假定’(hypothesis de nomenclature)에 서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목록의 가정이란 “재화, 또는 상품으로 규정된 물들

(8)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Benneti and Cartelier(1980)를 보라.

의 총체에 대한 설명이 사회에 관한 모든 명제 이전에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 [Benneti and Cartelier(1980, p. 94)],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 또는 물리적 세계와 같이 우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중립적 토대위에 특수한 사회적 형태가 세워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맑스의 화폐발생론의 실패는 결국 노동의 의미작용을 전제로 한 위에서 이 노동의 승인 욕망의 충돌에 의해 화폐 발생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맑스의 이 공지를, 노동의 승인 욕망을 葛藤의 模倣欲望으로 대체함으로써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가치형태의 변증법은 주체와 경쟁상대 사이에 物이 개재된, 상호 모방하는 욕망의 변증법, 특수한 폭력형태의 변증법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맑스가 말한 단순한 가치형태를 본질적 폭력형태(F1), 전개된 가치형태를 상호적 폭력형태(F2), 그리고 일반적 가치형태 및 화폐형태를 창시적 폭력형태(F3)에 각각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분리가 형태 F1, 즉 상품교환의 기본 구조인 주체 — 대상 — 경쟁상대의 관계를 낳고, 감염의 누적이 형태 F2를 낳는다. 그리고 선출 배제가 형태 F3에 해당된다. 화폐는 주체들의 모방폭력이 우연적으로 일점에 집중되어 폭력의 방향이 전화됨으로써 무의도적으로 창출된다. 이처럼 한 상품을 다른 상품들로부터 선출/배제하여 여기에 만장일치의 모방폭력이 집중됨으로써 상호폭력의 연쇄가 단절되고 상품사회의 질서가 형성된다. 화폐는 상품 주체들의 모방폭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했지만, 일단 창출된 화폐는 교환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승인욕망에서 배제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경쟁적 적대관계를 조절하고 모방욕망을 사회화하는 제도적 제3항, 그리하여 경제적 주체가 성공적으로 사회화되는 특수한 양식이 된다. 화폐는 그 자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의 취득 욕망을 가치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화폐를 통해 상품사회의 주체들은 자신의 욕망이 지향할 공통의 방향을 갖게 되고, 모방의 적대관계는 수의 크기를 둘러싼 대립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방의 적대관계는 사적 소유 욕망, ‘타인의 활동 성과를 숫자의 형식으로 전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되며[Aglietta and Orlean(1982, p. 47)], 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이 절대적인 숭배와 굴복이 이제 노동과 생산적인 실천이 전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Aglietta and Orlean(1982, p. 76)]. 그렇지만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에 의하면 화폐의 정통성은 만장일치의 폭력이 초래한 산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화폐주권의 의의를 여기에서 찾는다. 화폐의 유일한 보증은 사적 주체가 통화제도의 초월성을 믿는 데 있으며, 이 신념은 통화제도의 발생이 은폐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다[Aglietta and Orlean(1982, p. 48)].

상품관계는 그 자체 내에 '私的인 것'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사회성의 문화적 특징은 개인주의이며, 개인주의는 경쟁을 통해 적대관계를 심화시킨다. 증여에 대해서 전유가, 연대에 대해서 에고이즘이 우위에 선다[Aglietta and Orlean(1982, p. 217)]. 그러나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에 따르면 物이 개재되지 않으면 주체와 경쟁상대의 대결은 타자의 인격을 직접 지배하려는 살해와 복수의 욕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은 폭력을 우회시키고 유도하는 데 기본적인 사회적 의미작용을 수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경제관계를 자립시켜 온 역사적 과정은 인간사회의 전환에서 결정적 전환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욕망을 물의 전유로 우회시킬 수 있는 사회, 사용가치와 경쟁상대의 인격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는 한층 더 거대한 폭력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에서는 타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의 치명적인 短絡(court-circuit)을 훨씬 용이하게 피할 수 있게 된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연대성이 강력한 사회에 비해 유연하고 덜 취약하다. 저자들은 자유주의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Aglietta and Orlean(1982, pp. 37-38)].<sup>(9)</sup>

#### 2.4. 勞動의 意味作用과 資本主義의 理解

그러면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노동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노동이 인간의 존재로의 열망에 대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사회질서의 자명한 토대로 삼을 수는 없다. 노동을 출발점, 인간 사회의 자명한 토대로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의미작용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노동이 의미를 갖는 것은 주권의 원리에 의해 物을 향해 폭력이 규격화된 경우만이다. 위에서 본 모방욕망론과 화폐형태 발생론의 당연한 귀결로서 상품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세계와 노동세계는 모방의 적대관계가 초래한 사적 소유욕망, 그리하여 화폐에 대한 숭배와 굴복, 화폐물신에 의해 압도적으로 규정되게 된다. 노동은 사적 소유 욕망, 화폐 취득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노동 소외.

그렇지만 노동의 의미작용은 이처럼 비합리적 모방욕망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 욕망에서 비합리성만을 본다면, 비합리적 욕망, 그리고 그것에서 배태되는 비합리적 질서로부터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미래의 企劃(project)에 대해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라르의 모방욕망의 자기조직화론의 자기

(9)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보들리야르에 대해서, 근대사회가 마법에 걸려 모든 갈등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와는 달리 이들은 모방경쟁이 인간욕망에 의해 야기되는 적대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본다[Aglietta and Orlean(1982, p. 38)].

(self, auto)에는 合理性, 省察性, 自律性(autonomy)이 없다. 그런 면에서 지라르의 이론에는 여전히 구조주의의 유제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라르의 모방 욕망의 세계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라르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과 복합성, 인간 욕망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이성과 狂氣의 야누스적 양면성과 갈등이 빚어 내는 역사라는 안목이 필요하다(E. Morin: H. Arendt).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이 “인간의 역사는 성스러운 시간을 반복하는 기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實踐(praxis)이다” [Aglietta and Orlean(1982, p. 243)]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들은 지라르 이론의 단순 적용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Kosik(1967)를 따라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과거, 현재, 미래의 3차원의 시간에 따라 전개할 수 있으며, 이 인간적인 시간구조 때문에 인간은 기획(project)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의 역사는 자기창조적인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한다 [Aglietta and Orlean(1982, p. 24)]. 노동은 소극적으로는 죽음의 직접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의외로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노동이 타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되는 인간적 실천과 기획의 特權的 場所로 되기 때문에 한층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이 잠재적으로 해방을 초래하는 과정이 되는 것은, 노동이 사회를 脫聖化시킬 수 있는 급일까지 경험된 유일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Aglietta and Orlean(1982, p. 243)].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하면 상품질서는 노동의 적극적 의미가 그 최고 단계에 도달한 질서이다 [Aglietta and Orlean(1982, p. 244)]. 노동의 의미작용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다소 모순적인데 노동의 위상과 그 역사적 형태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주권의 원리에 의존하며, 상품사회에서 노동은 사적 소유욕망, 화폐 취득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노동은 미래를 구상하는 실천이며, 이 실천에 의해서 주권의 원리를 파괴하는 힘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Aglietta and Orlean(1982, p. 245)].

그렇지만 노동의 의미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화폐의 ‘創世記’에 의해 상품사회에 질서가 부여되자마자, 이것은 새로운 자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양식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낸다 [이하 Aglietta and Orlean(1982, pp. 245-249)]. 화폐의 사적 축적이 욕망의 원동력이 된다. 상품유통이 생산과정을 사로 잡게 되면서 C-M-C 대신에 화폐가 주도권을 장악한 M-C-M'의 자태 변환이 일어난다. 동시에 상품관계가 지니고 있는 時間性이 생산에 부여된다. 이 시간은 모든 상징성과 무관한 동질적인 지속

이며, 순수하게 양적이며 미분가능한 시간이다. 왜냐 하면 화폐가 순환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인  $M-C-M'$ 의 도식에서 사회적 의미를 얻는 것은  $M' - M$ 의 차액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도 그 질적 성격이 순수한 지속에 종속된 추상적 노동이 된다. 타인 노동에 대한 지배는 생산에서 괴종 시계의 기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결과 임노동자의 화폐 주도권에의 종속을 나타내는 賃金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화폐 관련이 형성된다. 이 화폐 종속관계는 다른 종속관계에 비해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임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사적 관계를 통해서 임금을 받고 인정되지만, 이 인정은 주인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노예와는 반대로 직접적으로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임노동자는 외견상 사적 계약관계에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사회전체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임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운명이 어떠하든, 그는 일정액의 화폐를 소지한다. 역으로 그를 고용하는 기업은 노동력을 사용한 결과 생산된 물의 사회적 인정에 대해 내기를 건다(Aglietta and Orlean(1982, pp. 246-2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는 언제나 실업의 공포가 따라 다니며, 임금 수준이 자신의 원만한 생활을 가능케 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하여 임노동제도는 사회적 적대관계의 새로운 양식이 된다. 즉 이것은 사적 계약의 형태를 취한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이면서, 소유에서 배제된 동질적 사회 범주를 사적 소유자와 대치시킨다.

그렇지만 임노동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력사용의 일반적 조건은 제도화되게 된다. 이 일반적 조건이 계급투쟁의 쟁점이 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국가주권이 발전한다. 즉 계급투쟁의 법률에 의한 규제가 발전한다. 이리하여 임노동관계의 발전은 국민국가가 확립될 때 가장 강력한 과정이 된다. 임노동자의 화폐 지출이 점점 긴밀한 상품유통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가동성이 높아지고, 노동력 사용의 일반적 조건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규준이 국내에서 표준화됨에 따라, 상품유통은 국민적 화폐공간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의 정착은 수세기를 요하는 장기적 경향이다. 그러나 장기적 과정에 의해서 역으로 임노동관계는 화폐관계의 조직화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노동관계는 국민적 공간에 있어서 화폐의 기능들을 통일하는 경향, 즉 국민적 통화제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 3. 批判과 比較

#### 3.1. 리피에츠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시도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들에 대한 리피에츠, 카르틀리에의 비판 그리고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과 마찬가지로 지라르의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다소 다르게 근대성 비판을 발전시킨 듀피와 듀무셀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리피에츠는 조절이론을 알튀세르 학파의 ‘叛亂的 繼承者’(fils rebelles)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古典的’ 알튀세르학파는 다음 네 가지 테제로 요약된다: 1) 사회 현실은 지배적 층위가 존재하는 중층결정되는 전체다. 2) 주체는 구조의 담지자다. 3) 생산력은 그 자체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물질화된 구조다. 4) 교환관계의 모순적 성격은 현상적이다[Lipietz(1993, p. 127)]. 리피에츠는 이 네 가지 테제중 1)과 3)은 알튀세르 학파의 ‘좋은 측면’이고 계승해야 할 유산이다. 그러나 2)와 4)는 ‘나쁜 측면’이고 극복 대상이다. 조절이론은 바로 이 ‘나쁜 측면’에서 알튀세르 학파를 ‘止揚’한다. 이로부터 모순과 주체가 없는 구조의 항구적 재생산의 개념에서 모순과 주체가 존재하는 상대적이고 잠정적인 조절개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리피에츠에서 조절은, “요소들의 투쟁을 통한 통일의 방식” 또는 “사회 관계가, 그 투쟁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재생산되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垂直的 矛盾’과 상품생산 = 교환주체들간의 ‘水平的 矛盾’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리피에츠가 알튀세르 학파를 ‘지양’하는 조절이론의 맑스적 토대로서 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상품 주체들간의 상호인정을 둘러싼 ‘수평적 모순’이다. 이 점을 강조하여 리피에츠는 조절을 “社會的-私的 矛盾의 不安定한 解決樣式”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리피에츠가 이같이 상품적 모순의 이론적 의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생산양식론속에 상품경제에 고유한 사회적-사적 모순의 해결양식을 포섭함으로써만, 투하노동을 가치실체로 환원한 ‘실체론적 환원주의’를 극복하는 이른바 ‘形態的 實體’(formal substance)론을 구성할 수 있고, 나아가 현대자본주의의 포드주의의 위기도 올바르게 해명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글리에타와 토론하게 되는 주요한 장소도 바로 여기서다.

아글리에타와 리피에츠의 이론적 대립은 역사가 있다. 리피에츠는 일찍이 아글리에타의 학위논문이 알튀세르적 노선을 따라 노동과정에서의 잉여노동 추출 문제에만 매달리고 상품관계의 모순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貨幣의 暴力』에서는 정

반대 방향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출발점은 모두 동일한 모방욕망의 주체일 뿐인 개인이다(Lipietz(1994)). 사회적 모순과 적대는 평등한 개인들간의 수평적 모방경쟁에 기초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인데, 이는 ‘調節接近’ — 리피에츠는 조절이론은 없고 조절접근만 있다고 본다 —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착취자와 비착취자로 분열된 적대적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폐기하고 구조는 개인들간의 협약으로만 이해할 뿐이다(Lipietz(1994)).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론적 ‘大後退’다. 가치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이론은 실체론적 환원주의에 대한 ‘초비판’을 통해 ‘실체없는 형태’론으로 나아간 것으로 비판된다(Lipietz(1983, pp. 235-237)):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사회관계의 상품적 측면에 주목하여 형태를 중시한 나머지 실체를 망각하고 있다. 이는 상품관계에서 주체가 사회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 사적 노동의 산물이라는 것, 생산에서 사적으로 지출된 노동이 상품관계를 통해 사회적 노동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없는 교환, 노동이라는 실체없는 형태를 상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리피에츠에 의하면 상품은 유용 대상, 인간 노동의 산물일 뿐 아니라, 또한 사회를 위해 사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이라는 삼중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환을 통해서 사적 생산물이 사회적 유용물로 승인되는 동시에 사적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승인되는 것이다(Lipietz(1979, p. 82)). 축적체제 개념은 상품관계에 대한 이러한 사고로부터 구성된다(Lipietz(1983, p. 132)).

1) 인간을 모방욕망적 주체로만 보는 것, 그리고 수평적인 모방적 주체 위치만을 가정하면서 사회적 모순과 적대를 이들간의 수평적 모방 경쟁에서만 비롯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세계는 모방욕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간들간 적대관계는 모방적 경쟁관계에서 도출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독립변수로 놓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전 전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태초에 적대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한가? 욕망에서 출발하는 행위론적 접근에 대해 구조의 선행적 존재를 상정하는 방법론적 구조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대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리피에츠는 ‘조절접근’이 ‘구조에 대한 主體의 蜂起’(revolte)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그람시의 정치 이론을 수용하여 조절학파에서 누구보다 행위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가 여전히 미리 주어져 있는 구조적 적대의 선행적 존재만을 말하고 있을 뿐, 적대의 발생조건과 발생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점에서 그의 ‘구조에 대한 주체의 봉기’는 여전히 구조주의 전통 내부의 일이었다



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결합은 그에게서 맑스의 가치형태론이 시도한 화폐의 발생이라는 문제가 삭제되어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sup>(10)</sup> 자유주의와 전통 맑스주의는 적대의 발생조건을 희소성에서 찾았다. 그 반면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경제적 폭력이란, 희소성으로 불리는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의 2항 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주체 — 타자 — 대상간의 3항 관계의 산물이며, 근대 개인주의는 ‘量的 稀少性’ 대신, 오도된 ‘質的 稀少性’을 격발시켰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분명 모방욕망론의 일면성에도 불구하고 적대의 발생조건과 작용방식에 대해 이론적 진전이며, 적대의 약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2) 리피에츠는 ‘形態的 實體’론을 ‘實體없는 形態’론과 대치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만 한다. 리피에츠는 맑스의 전통에 따라 노동에서 출발하여 사적 노동의 사회적 인정을 문제로 삼는다. 그렇지만 그의 경우에는 노동의 의미작용의 위상은 전제로 되어 있을 뿐, 문제로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기여는 바로 노동의 의미작용의 위상을 문제로 삼은 데 있다. 그들은 노동이 아니라 욕망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비합리적 욕망에서 출발하여 폭력을 설명하고, 노동의 의미작용이 이 비합리적 욕망에 의해 역규정되는 측면을 포착함으로써, 화폐의 물신숭배와 욕망의 소외를 낳는 근대 사회의 비합리성의 심연과 특수한 폭력의 운동형태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맑스의 가치형태론은 원래 가격이론이 아니라, 가치형태에 대한 비판이론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맑스의 의도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근대성 비판은 도구적 이성 비판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도구적 이성은 그것이 아무리 도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성의 세계 내에 있는 데 반해 모방욕망과 모방폭력의 세계는 인간 욕망의 즉자적, 충동적, 비합리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노동 이전에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욕망의 세계가 노동과 소유의 세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라도 노동이 필요하고, 소유가 필요하다. 노동의 세계는 인간 자유를 위한 근거일 뿐 아니라, 그것이 비록 ‘필연의 왕국’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자유 실현의 독자적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욕망의 세계와 노동-소유의 세계는 상호 환원될 것이 아니라, 접합되어야 한다. 생활양식론과 생산양식론, 사회화론과 가치론은 상호 대체될 것이 아니라 접합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치형태론과 가치실체론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새롭게 해석될

(10) 리피에츠 화폐이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Troisvallets(1990)을 보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리피에츠가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에 대하여 실체없는 형태론이라 비판했을 때, 그는 이들이 사회화론에 일면적으로 경사되어, 소유의 근거이자 자유실현의 독자적 장소로서의 노동의 독자적 문제 설정이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유의 근거라는 의미에서 노동을 가치의 실체로 보는 것까지는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사회적 인정을 문제삼는 것만으로는 아주 부족하다: 가) 무엇보다 실체인 노동의 의미작용의 위상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의미작용 자체를 둘러싼 疏通鬭爭의 次元을 개방해야 한다. 리피에츠는 정치생태학에 와서 비로소 이것을 문제삼는다. 그렇지만 그의 가치론은 정치생태학과는 유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중력중심을 설정하는 노동-가치이론은 경제활동의 조절문제를 고전역학적인 균형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균형은 순간에 불과하고 시간속에서 진화하는 불균형이야말로 항상적인 것이다. 지식과 시간의 차원을 도입한 '自己組織化의 進化的 過程'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신고전파 완전경쟁모델과 맑스-리피에츠의 가치론에서 모두 결여되어 있다. 다) 가치실체로서의 노동에 대해서도, 자본에 의해 그것이 아무리 추상화되고 실질적으로 포섭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투하노동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 창조하는 성질을 인정해야 한다. 현대자본주의론에서 일찍이 주목된 이 현상은 가치론에서는 적절히 취급되지 못했다.

### 3.2. 카르틀리에

카르틀리에에는 베네티와 함께 '分離와 社會化'론의 대표적 인물로서, 가치론을 비판하고 서로 분리된 상품적 주체들이 화폐의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사회화된다고 주장하였다 [Benneti and Cartelier(1980)]. 카르틀리에에는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이 지라르의 모방욕망론으로 화폐의 발생을 설명하는 논리를 내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논리의 전개 자체에 내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Cartelier(1983)]. 먼저 단순한 가치형태  $x$ 상품  $A = y$ 상품  $B$ 의 등식을 이미 실현된 교환으로 본다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할 여지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이 등식을 교환자의 관점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y'$ 상품  $B = x'$ 상품  $A$ 로 바꾸어 보자. 그런데 이 때 만약  $x = x'$ ,  $y = y'$ 가 되어 교환이 그 자체 고립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물교환일 것이고 화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 스스로 주장한 화폐의 논리적 선행성 테제에 위배된다. 그렇지 않고  $x \neq x'$ ,  $y \neq y'$ 라고 한다면 교환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같등적이고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교환이든 교환규칙이 존재해야 한다. 1) 그 때문에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이 모방폭력론으로 가치형태의 단계적 이행과 화폐 발생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난점을 갖는다:  $x$ 상품 A =  $y$ 상품 B의 식은 일반적 상품교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규칙이 존재하는 일반적 상품교환의 성립 이후에야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이론이 이 비판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들의 이론은 교환 및 가치형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그렇지만 교환을 배제할 때 우리는 폭력에 대해 어떠한 규칙을 부여할 수 있을까. 모방적 폭력의 주체들은 어떠한 규약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이미 사회화되었는가. 본질적 폭력에서 창시적 폭력으로 이행하게 하는 규칙이 회생이나 법이 아니라 화폐의 창출을 가져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카르틀리에는 이러한 비판 끝에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처럼 기원의 신화를 추구하여 헛되이 화폐발생 이론을 만들어 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화폐를 상품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주어져 있는 제도적 규칙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이미 『貨幣의 暴力』에서 베네티와 카르틀리에의 분리/사회화론에 대해 비판한 바가 있다[Aglietta and Orlean(1982, pp. 60-62)]: 1) 분리의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으면서도, 분리는 단지 사적인 것과 사회적 것간의 관계로만 파악되고 있을 뿐, 일체의 폭력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주체의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속에서 파악되지 않으며, 주체들은 서로 투쟁하지도 않는다. 2) 계산화폐는 이미 주어져 있는 전제로 간주되고 그 발생의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화폐는 不動의, 항상 통일된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 3) 화폐의 측정수단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경제과정의 시간적 차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이 비판들은 베네티와 카르틀리에의 이론의 결함을 잘 지적하고 있고 자신들의 시도가 갖는 강점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곧 그들 이론의 옳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환이 문제로 되고 있는 한 교환규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폭력을 일점으로 집중하는 창시적 폭력이 유독 화폐발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은, 날카로운 지적이다. 경쟁적 적대관계로부터 화폐발생을 끌어 내리는 착상은 좋지만, 어떤 상품을 소비에서 배제하여 여기에 상호 폭력을 집중시킴으로써 화폐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이 공방시용(convention) 이론을 수용, 발전시키게 된 것은 그들 논리의 무리를 자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글리에타는 이후 공방시용 이론을 수용하면서 폭력의 일점 집중이 아니라 기대의 일점집중에 의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무의도적인 결과로서 화폐가 창출된다고 말하고 있다[Aglietta(1988)]. 이에 따르면 화폐는 상대방의 기대를 서로 예상하는 두 주체간의 거울 게임에 의한 비결정성의 난점을 해결하는

社會的 콩방시용이다. 그리고 아글리에타는 교환관계에 들어가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매자는 구매자와 짝패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화폐 소지자와 관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Aglietta(1988, p. 95)). 그렇다면 콩방시용 이론의 수용에 의해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화폐폭력론에서의 모방폭력론의 논지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점은 확실하지 않다. 아글리에타는 1994년의 대답에서 여전히 지라르의 모방욕망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Aglietta(1994, pp. 55-56)). 화폐폭력론의 모방욕망, 모방폭력론을 模倣期待論으로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다. 모방욕망론과 모방기대론은 비판적 보완관계에 설 수 있지 않을까.<sup>(11)</sup>

이 때 모방 '폭력'의 일점 집중에 의한 화폐 발생 논리는 정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아래 듀피와 듀무셀의 논의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3. 듀피와 듀무셀

Dumouchel and Dupy(1979)가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연구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보다 먼저 지라르와 직접 교류하면서 그의 모방욕망론을 근대성 비판, 정치경제학 비판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구를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연구와 비교해보는 것은 유익하다. 듀피와 듀무셀은 마찬가지로 지라르가 탐구하지 않았던 경제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서도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처럼 가치형태론을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진 않았고, 또 화폐의 위상에 대해 그만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근대성의 비판이론을 구성하는 데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모방욕망론에 의거하여 이들이 해명하고자 한 것은 사회과학의 오랜 주제로 되어 온, 인간의 행위가 자신에게 외재적이고 소원한 실체로 전화되는 근대사회의 物象化의 문제다(Dumouchel and Dupy(1979, 머리말, p. 11)). 이들은 인간이 서로에게 질곡이 되고 있는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지라르의 모방욕망론이 맑스의 계급투쟁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고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근대사회는 성스러운 것이 탈각된 사회여서 전근대사회와는 달리 모방욕망을 추동력으로 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전례없이 격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근대사회는 이 모방욕망의 해방과 경쟁적 투쟁에 직면하여 파멸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제공하는 곳은 지라르가 한번도 탐구하지 않았던 장소, 즉 經濟의 領域이라는 것이다.

(11) 콩방시용 이론은 사회적 적대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이론의 기여를 전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콩방시용 이론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Bidet(1995)를 참조하라.

경제는 近代性的의 本質的의 形態로서, 그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더욱이 전례 없을 정도로 격렬한 투쟁을 제도화한 것이면서 동시에 모방욕망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로이기도 하다. 1) 그런데 이들은 폭력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별개의 폭력으로 유도하는 장치는 이 經濟의 兩面性을 해명함에 있어서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과는 달리 성스러움, 따라서 희생 제의-폭력의 일점 집중에 의한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전혀 별개의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Dumouchel and Dupy(1979, pp. 110-111)]. 상품 경제에서는 주체는 타자가 소유하거나 바라고 있는 대상과 等價인 것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단일물로 집중되지 않고 따라서 모순도 퍼져서 확산되어 버린다. 모든 상품은 공통의 척도로 계량 가능하기 때문에 모방에서 비롯되는 경쟁적 투쟁은 國富생산에서 자기 몫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귀착되어 버린다. 모방 모델은 장애라는 성격이 약화되고, 모델로서의 성격도 감소한다. 대중사회는 항상 위기에 빠지지 않는고, 모방에서 생기는 이중 구속은 여러 방향으로 확산된다. 그리하여 모방 투쟁은 동일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수의 크기를 둘러싼 단순한 '經濟的' 투쟁이 된다. 이것이 근대를 특징지우는 투쟁의 형태로 된다는 것이다. 각자의 주요한 장애는 선망 = 질시하는 인물이 아니라, 화폐, 그리고 가격, 임금, 소득, 금리,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익명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근대성을 '物の 지옥'으로 파악한다.<sup>(12)</sup> 2) 듀무셀은 성스러움에 대신하여 새로운 사회적 결속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회소성의 원리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성스러운 것이 미개사회를 창출하듯이 稀少性이 근대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회소성은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준 전근대적 연대의 채무가 해체됨에 따른 사회성원들의 외부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외부화되는 성원들에 새로운 결속을 가져다 주는 원리이기도 하다. 회소성은 난폭한 모방의 상호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또한 모방에 본래적 보편성을 회복시킨다. 이로부터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회소성에서 경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소성이 모방 경쟁의 소산이라는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sup>(13)</sup> 3) 이들은 폭력 따라서 비합리성이 인간관계의 유일한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마땅한 지적을 하고 있다. 지라르에게는 사회성원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결합시키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공공의 공간, 완전히 투명하지도 완전히 불투명하지도 않은 인간 상호간의 매개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12) Attali(1982, 서문, p. 25)의 『貨幣의 暴力』에 대한 논평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볼 수 있다. "나는 폭력의 담당자로 되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물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은 생산자의 생명력과 마력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13)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회소성과 근대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Xenos(1989)를 보라.

그리하여 이들은 모방폭력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 중화시키는 새로운 매개관계를 구상함으로써 근대세계의 가공스런 폭력과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Dumouchel and Dupy(1979, pp. 130-131)].

#### 4. 맺 음 말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론을 도입하여 조절이론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노동이 아니라 욕망, 상품이 아니라 화폐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화폐가 상품경제의 토대라고 보았다. 그들은 화폐를 근대사회에서 취득 욕망으로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방욕망이 상호 폭력에 의한 共滅로 나가지 않고, 욕망을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자유로히 추구할 수 있게 하는 調節의 制度形態 상품경제 내의 제도적 제3항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하여 노동 착취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도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근대경제에 내장되어 있는 폭력의 정체,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물상화시키는 자본주의 폭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의 윤곽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에 의한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하이에크식의 자유주의적인 자생적 질서론과 대항할 뿐 아니라, 맑스-베버적 전통에 뿌리를 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구적 이성 비판 이상의 근대성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의 시도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맑스가 가치형태론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화폐발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은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개척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노동의 정치경제학 비판, 또는 착취 비판의 독자적 차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자본주의 비판이론은 욕망과 착취, 생활양식과 생산양식 두 차원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지도 않았다. 그들은 화폐폭력의 새 차원을 드러 내었지만, 화폐주권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자본의 폭력론을 발전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의 화폐 폭력론은 그들이 해명하고자 한 바, 근대 경제, 근대 사회에 내장된 폭력의 깊이, 그 비합리성의 심원함을 충분히 천착해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들의 탐구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려면 현대 소비자본주의, 정보자본주의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과 생활 모두에서 욕망의 물상화를 비판하는 이론 구성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貨幣의 暴力』을, 지라르와 푸코를 결합시킨 『賃勞動者 社會의 轉換』과 같이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의 시도가 자본의 폭력에 대한 설명에서 취약한 이

유는 소유-착취론의 미약함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상품경제와 임노동경제의 통합으로 보는 조절이론 전통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조절이론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단순히 소비재의 수요차원으로 좁혀, 생활세계에서 욕망과 가치의 물상화라는 광대한 문제를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소외된 욕망에 대한 유례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행위이론에서는 노동의 적극적 역할, 따라서 또 근대사회에서의 노동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반면 리피에츠는 정치생태학의 관점에서 임노동자 주체 위치의 제한성에 대해 말하면서 다중심적 사회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리피에츠의 정치생태학은 공업사회의 생태문제에 한정되어 있고, 소비, 정보자본주의 단계에서 생활세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가치 또는 의미의 물상화 문제를 적절히 끌어 안지 못하고 있다. 그의 정치생태학과 다중심적 사회운동론은 자신의 가치이론, '형태적 실체'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는 조절이론에 대한 다른 연구 성과와 더불어 消費資本主義에 대한 批判, 즉 자본에 의한 욕망의 물상화와 노동 착취, 그리고 생태 파괴에 대한 통합적 비판과 적극적 대안의 모색<sup>(14)</sup>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안의 모색에서는 또한 근대성을 종래까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적 반전(反轉)으로 보면서, '정치의 복원'을 추구한 이론들에 새로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江原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산 22

전화: 0361-50-6128

팩시: 0361-50-2271

## 參 考 文 獻

김 현(1987):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나남.

박관석(1995): "맑스의 가치이론에 있어서 실체, 크기, 형태론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14) 하나의 시도로서 Bidet(1994)를 참조하라. 비데는 잉여가치의 영유, 즉 착취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을 자본주의의 제1모순, 또는 내적 모순으로 보고, 사용가치의 영유, 즉 자본에 의한 의미의 박탈과 욕구의 소외 및 사회적 생산비의 외부화를 둘러싼 자본과 생활자간의 갈등을 자본주의의 제2모순, 또는 외적 모순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비데에게는 자기조직화론이 결여되어 있다.

분석,”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박도영(1995): “시장, 화폐, 경제정책,”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논문집, 제32회.

전창환(1995): “아글리에타의 현대자본주의 동학이론에 대한 재조명,” 『이론』 11, 봄/여름.

유종권(1993): “현대자본주의와 화폐형태의 동학: 조절학파의 화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논문집, 제7회.

Aglietta, M. (1976): *Regulation et Crises du Capitalisme: L'Experience des Etat-Unis*, Calmann-Levy; 若森章孝外譯(1989), 『資本主義のレグラシオン理論: 政治經濟學の革新』, 大村書店.

\_\_\_\_ (1980a): “La Devalorisation du Capital,” *Économie Appliquée*, 2.

\_\_\_\_ (1980b): “Note Bibliographique,” *Revue Économique*, 31 (review of A. Lipietz (1979)).

\_\_\_\_ (1988): “L' Ambivalence de l' Argent,” *Revue Francaise d' Economie*, 3, 3.

\_\_\_\_ (1994): “De <Regulation et Crises du Capitalisme a la <Violence de la Monnaie> et Au-dela (Interview),” in T. Negri *et al.* (1994).

Aglietta, M., and A. Orlean (1982): *La Violence de la Monnaie*, PUF, (2nd ed. 1984); 井上泰夫·齊藤日出治譯(1991), 『貨幣の暴力』, 法政大出版局.

Benneti, C., and J. Cartelier (1980): *Marchands, Salarier et Capitalistes*, Francois Maspéro.

Bidet, J. (1994): “Le Travail fait Epoque,” *La Crise du Travail*, PUF.

\_\_\_\_ (1995): “L' Institutionalisme et Theorie de Conventions dans Leurs Rapports avec la Problematique Marxisme,” *Actuel Marx*, 17.

Boyer, R., and Y. Saillard (eds.)(1994): *Theorie de la Regulation: l' Etat des Savoirs*, Editions La Decouverte.

Cartelier, J. (1983): “Note sur ‘La Violence de la Monnaie’ ,” *Revue Économique*, 2.

\_\_\_\_ (1985): “Theorie de la Valeur ou Heterodoxie Monetaire: les Termes d' un Choix,” *Économie Appliquée*, 38, 1.

Cartelier, J., and M. de Vroey (1989): “L' Approche de la Regulation. un Nouveau Paradigme?” *Economie et Societes*, Novembre.

Dumouchel, P., and J-P Dupy: *L' Enfer des Choses*, Editions du Seuil; 織田年和外譯(1979), 『物の地獄:ルネ・ジラルと經濟の論理』, 法政大學出版局.



- Dumouchel, P., and J-P. Dupy (eds.)(1983): *L' Autoorganization. De la Physique au Politique, Colloque de Cerisy*, Paris, Seuil.
- Dupy, J-P. (1983): *Ordres et Desordes, Enquete sur un Nouveau Paradigme*, Seuil.
- Favereau, O. (1994), "Règle, Organisation et Apprentissage Collectif: un Paradigme non stand and Pour tris Théories Hétérodoxes," dans *Analyse Économique des Convention*. PUF.
- Girard, R. (1972): *La Violence et le Sacre*, Edition Bernard Grasset; 김진식 역(1993),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 Jessop, B. (1990): "Regulation Theories in Retrospect and Prospect," *Economy and Society*, **19, 2**; "조절이론의 회고와 전망," 『사회경제평론』 3.
- Lipietz, A. (1979): *Crise et Inflation: Pourquoi?*, Paris, Maspéro.
- \_\_\_\_ (1983): *Le Monde Enchanté*, Francois Maspéro; 김균 역, 『조절이론과 마르크스경제학』, 인간 사랑.
- \_\_\_\_ (1989): *Choisir l' Audice: Une Alternative pour le Vingt et Unieme Siecle*, Editions de Decouverte.
- \_\_\_\_ (1993a): *Vert Esperance: L' Avenir de l' Ecologie Politique*, La Decouverte.
- \_\_\_\_ (1993b): "From Althusserian to 'Regulation Theory'," *Althusserian Legacy*.
- \_\_\_\_ (1994): "De l' Approche de la Regulation a l' Ecologie Politique: une Mise en Persepective Historique," in T. Negri et al. (1994).
- Negri, T., et al. (1994): *Ecole de la Regulation et Critique de la Raison Economique*, L' Harmattan.
- Orlean, A. (1990): "Contagion Mimétique et Bulles Speculatives," in J. Cartelier(ed.), *Formation des Grands Economiques*, PUF.
- \_\_\_\_ (1992): "The Origin of Money," in F.J. Varela, and J-P Dupy (eds.), *Understanding Origi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_\_\_\_ (1994): "Introduction: ver un Modele General de la Coordination Economique par les Conventions," *Analyse Économique des Conventions*, PUF.
- Schmidt S.J. (Hg)(1987): *Der Disc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Suhrkamp; 박여성 역(1995), 『구성주의』, 까치.
- Troisvallets, M. (1990): "L' Imflation Monétaire: un Concept en Construction dans

l'Approche Régulationniste," *Economic et Société* (Serie TR), No. 5.

Valleval, M-C (1995): "Une Theorie Economique des Institutions?," dans R. Boyer, and Y. Saillard (eds.)(1995).

Xenos, N. (1989): *Scarcity and Modernity*, Routledge.